

MU:A

무 아 인 테 리 어 매 거 진

VOL. 06

2026 · MU:A

HOME STYLING · 시공 없이

오늘, 바꿀 수 있어요.

시공 없이 집을 바꾸는 홈스타일링

LIGHT · 조명 | GREEN · 플랜테리어 | SET · 예산대별 세트

목 차

시공 없이 집을 바꾸는 법 — 무아의 홈스타일링

01	여는 글 — 작은 변화 Editor's Letter	p. 03
02	조명으로 바꾸기 Lighting	p. 04
03	커튼·러그·패브릭 Fabric	p. 05
04	플랜테리어 · 초록 Green	p. 06
05	수납·정리로 비우기 Declutter	p. 07
06	컬러·소품·아트 Colour	p. 08
07	예산대별 스타일링 세트 Budget Set	p. 09
08	방별 5분 스타일링 Room by Room	p. 10
09	시공이 필요한 순간 · 맺음말 When to Renovate	p. 11

“집을 바꾸는 데,
꼭 벽을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차이 — 홈스타일링은 감각의 문제입니다.”



조명 하나, 러그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 만년동

집을 바꾸는 데 꼭 벽을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조명 하나를 바꾸고, 러그를 깔고, 초록 한 점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시공은 나중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홈스타일링은 “적은 돈으로 큰 차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값비싼 소품이 아니라, 톤을 맞추고 떨어내는

감각입니다. 이번 호는 무아가 현장에서 쓰는 스타일링 감각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건 손을 좀 봐야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그때 무아를 찾아주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언젠가의 리모델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무아인테리어 대표 · 배성미 드림

빛만 바뀌도 집이 달라져요

빛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천장의 전체등을 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OFF THE CEILING

전체등을 꺼보세요

천장의 밝은 형광등 하나만 끄고 스탠드·간접을 켜도 집이 카페처럼 바뀝니다. 저녁엔 밝기를 낮추세요.

LAYERS

빛을 겹겹이

거실 간접 + 협탁 스탠드 + 식탁 펜던트. 밝기를 나누면 같은 공간도 시간대마다 다른 표정을 가집니다.

COLOUR TEMP

색온도 3000K

전구색(따뜻한 노란빛)이 집을 포근하게 합니다. 하얀 주광색보다 전구색 램프로 바꿔보세요.

INDIRECT

간접의 마법

간접 조명 바(무드등)를 가구 뒤·선반에 숨기면, 은은한 빛이 공간의 격을 올립니다.

무아 팁 전체등을 끄고 스탠드·간접을 켜는 것 — 돈 안 드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전구색(3000K)으로 통일하세요.



스탠드·간접이 만드는 저녁의 무드 · © Shixart1985 · CC BY 2.0 · Wikimedia Commons

커튼·러그로 온도를 입히다

천을 바꾸면 온도가 바뀝니다. 커튼과 러그, 쿠션 몇 개로 거실이 완성돼요 — 값보다 톤이 먼저입니다.

CURTAIN

커튼으로 온도

얇은 리넨 커튼은 빛을 부드럽게 걸러 집을 화사하게. 천장에 가깝게, 창보다 넓게 달면 층고가 높아 보입니다.

RUG

러그로 존 나누기

러그 한 장이 거실의 중심을 만들고 공간을 나눕니다. 소파 앞다리가 러그에 걸치는 크기가 적당.

CUSHION

쿠션·스로우

쿠션 몇 개와 스로우 담요로 계절감을. 톤은 두세 가지로 절제하면 고급스럽습니다.

BEDDING

침구의 힘

침실은 침구가 8할. 톤온톤 무지 침구로 바꾸면 호텔 같은 차분함이 생깁니다.

무아 팁 커튼은 창보다 넓고 천장 가깝게, 러그는 소파 앞다리가 걸치는 크기로. 이 둘만 바꿔도 거실이 완성됩니다.



러그 한 장이 거실의 중심을 만든다 · © Shixart1985 · CC BY 2.0 · Wikimedia Commons

초록 한 점, 가장 저렴한 인테리어

식물은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빠른 인테리어입니다. 큰 것 하나부터 들여보세요.

BIG ONE

큰 것 한 그루

작은 화분 여럿보다, 큰 그린 한 그루가 공간을 살립니다. 여백 있는 코너에 하나.

EASY CARE

키우기 쉬운

스투키·산세베리아·몬스테라는 초보도 키우기 쉽습니다. 빛이 적은 집도 OK.

LIGHT

자연광 살리기

창을 가리지 말고, 식물을 빛 가까이. 초록은 자연광과 만날 때 가장 예뻐집니다.

VASE

가지 하나로도

꽃이 부담되면 유칼립투스 가지 하나를 화병에. 가장 저렴한 인테리어입니다.

무아 팁 작은 화분 여럿보다 큰 그린 한 그루. 창을 가리지 말고 빛 가까이 두세요.



초록 몇 점이 만드는 생기 · © Keizers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덜어낼수록 넓어 보여요

덜어내는 것도 스타일링입니다. 보이는 물건을 줄이면 같은 집도 훨씬 넓고 단정해 보여요.

HIDE

보이는 것을 줄이기

생활감은 물건의 “보이는 양”에서 옵니다. 자주 안 쓰는 건 상자·바구니로 숨기세요.

ONE IN ONE OUT

하나 들이면 하나

새 물건이 오면 오래된 하나를 비우기. 여백이 유지되면 집이 늘 정돈돼 보입니다.

BASKET

바스켓·트레이

리모컨·충전기 같은 잡동사니는 트레이 하나에 모으면 단정해집니다.

EMPTY WALL

벽을 비우기

모든 벽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비운 벽 하나가 좋은 것 하나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무아 팁 생활감은 “보이는 물건의 양”에서 옵니다. 자주 안 쓰는 건 숨기고, 벽 하나는 비워주세요.



정돈된 선반은 여백과 오브제의 균형 · © Basile Morin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포인트 하나로 분위기를 바꾸다

페인트 없이도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트 한 점, 오브제 하나로 공간의 표정이 달라져요.

POINT WALL

포인트 하나

페인트가 부담되면 큰 아트 포스터·패브릭 한 점으로 포인트 벽을 만드세요.

THREE TONES

색은 세 가지

바탕색·보조색·강조색 세 가지로 정리하면 어떤 조합도 어울립니다.

OBJECT

오브제 한 점

예쁜 화병·오브제 하나가 선반의 주인공이 됩니다. 많이 두지 마세요.

FRAME

액자의 규칙

액자는 톤을 맞추고 여백을 두어 걸면 갤러리처럼 보입니다.

무아 팁 색은 세 가지(바탕·보조·강조)로. 오브제와 액자는 “적게, 톤 맞춰” 두는 것이 고급스럽습니다.



화병 하나가 만드는 분위기 · © Dominik Martin (Unsplash) · CC0 · Wikimedia Commons

예산대별 홈스타일링 세트

부담 없이 시작하는 세 가지 예산의 스타일링 조합입니다. 금액은 예시이며, 하나씩 채워도 충분합니다.

10만원으로

작은 시작

전구색 스탠드 1 · 유칼립투스 가지 ·
쿠션 커버 2 · 트레이 1

30만원으로

무드 완성

리넨 커튼 · 러그 1 · 무드등 · 화분 1 ·
무지 침구

50만원으로

거실 리셋

큰 그린 1 · 러그 · 간접조명 세트 ·
아트 포스터 · 사이드테이블

먼저 바꾸면 효과 큰 것

- 조명(전구색) — 가장 큰 변화, 가장 적은 돈
- 러그 — 거실의 중심을 단번에
- 큰 그린 한 그루 — 공간에 생기

천천히 채워도

- 아트·액자 —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 오브제·화병 — 여행지에서 하나씩
- 침구·커튼 — 계절 바뀔 때

※ 안내 금액은 예시이며 제품·브랜드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나씩 바꾸는 재미가 홈스타일링입니다.

방마다, 5분 스타일링

오늘 저녁 바로 할 수 있는 방별 작은 변화입니다. 큰 공사 없이, 손이 자주 닿는 곳부터.

ROOM

거실

러그로 중심을 잡고, 전체등 대신 스탠드·간접으로. TV 옆에 큰 그림 한 그루.

ROOM

침실

톤온톤 무지 침구 + 협탁 스탠드. 커튼은 은은한 리넨으로 바꾸면 숙면 무드.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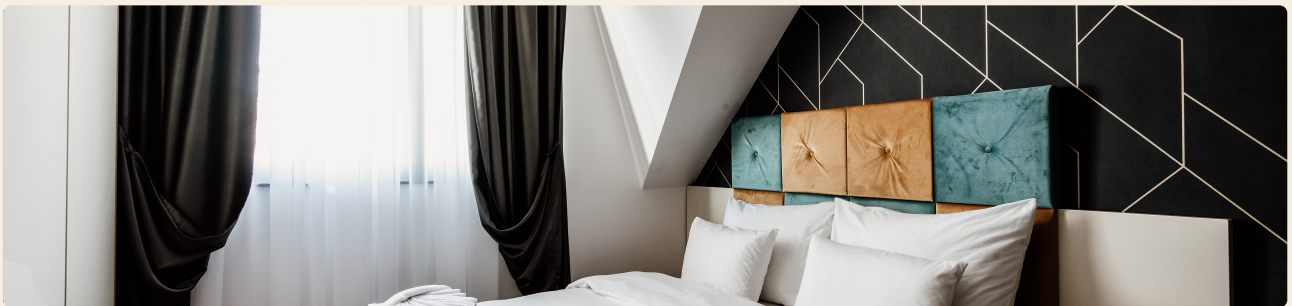
현관

신발을 숨기고 트레이·거울·작은 조명 하나. 첫인상이 달라집니다.

ROOM

주방

상판 위를 비우고, 자주 쓰는 것만. 원목 도마·화병 하나로 카페 느낌.



아늑한 침실은 침구와 조명이 8할입니다 · © Shixart1985 · CC BY 2.0 · Wikimedia Commons

스타일링으로 안 되는 순간도 있어요

소품으로 해결되는 것과 시공이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아래 신호가 보이면, 그때가 무아를 찾을 때입니다.

SIGN

바닥이 들뜨거나 삐걱

스타일링으로는 못 가립니다. 바닥은 생활 안전과 직결되니 전문 시공이 필요합니다.

SIGN

수납이 근본적으로 부족

불박아·팬트리처럼 구조적 수납은 시공의 영역. 짐이 늘 넘친다면 상담을.

SIGN

동선이 불편하다

벽·문 위치를 바꿔야 하는 문제는 소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SIGN

노후 설비·결로·곰팡이

방수·단열·배관은 미루면 커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빨리.

오늘의 스타일링이 언젠가의 리모델링으로 작게 시작해보고, 손봐야 할 때가 오면 무아가 함께합니다. 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010-9447-7622 · @muadesign2025

MU:A
INTERIOR

WITH MU:A

작게 시작하고,
필요할 때 무아와.

대표 배성미

전화 010-9447-7622

이메일 bsm619@naver.com

홈페이지 www.ttasum.com

인스타 @muadesign2025

사업자 404-10-28650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43번길 43-5, 1층 104호(중리동)

공간을 비우고, 삶을 채우다